

스리랑카, 평화협상 진전으로 경제여건 호전

국별조사실

- 스리랑카 내전은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지배민족 싱할리족(불교)과 전인구의 17%인 소수민족 타밀족(힌두교)간의 분쟁으로 1983년 스리랑카로부터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조직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가 타밀족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음. 아시아에서 가장 긴 유혈분쟁으로 지난 20년 간 6만5천명의 사상자와 심각한 경제난을 유발시킨 본 내전은 지난 해 2월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

□ 평화협상 진전으로 2002년 경제성장은 플러스로 반전

- 스리랑카는 2001년 -1.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지만 평화협상의 진전에 힘입어 2002년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함.
 - 그 동안 치안상 폐쇄되었던 도로들의 재개통, 선박에 과세되었던 전쟁 리스크 보험에 대한 과징금 폐지, 2002년 2억 4,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관광수입 등에 힘입어 GDP의 53.6%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6%의 성장을 기록함.
- 그 동안 평균 1,000억 루피씩 지출되었던 군사비가 2002년 600억 루피로 감소함에 따라 GDP대비 군사비가 4.8%에서 4%로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재정적자도 2포인트 감소한 8.9%를 기록함.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수요 감소로 금리 상승압력이 줄어들었으며 정부의 금융정책 운용도 다양해짐.

- 또한 협상진전에 따른 신용회복으로 2002년 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이 역사상 2번째로 많은 2억 3,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간접투자액도 4년 만에 순수입으로 반전하며 주식시장도 약 45% 정도 상승함.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증가하여 월평균수입의 3.5개월 치에 해당하는 17억 달러로 전반적으로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음.

□ 평화 협상의 최근 동향

- 현재 타밀 반군측은 정부측에 대한 자신들의 시행요구 사항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에 개최예정이었던 정부와의 평화협상에 불참하여 협상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함.
 - 타밀 반군측은 그 동안 테러단체 분류에 따른 각종 제제조치 해제, 북·동부 자치지역에서의 정부군 철수, 임시정부에 조속한 권한 부여로 피해지역 복구대책 시행 등의 요구를 정부측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이에 정부측의 위크레메싱헤(Wicremasinghe) 총리는 “스리랑카 내의 타밀 반군측에 제재조치는 해제하였으나, 미국, 영국 등에 있는 해외지역에 있어서의 제재조치 해제는 권한외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피해지역 복구대책 시행에 있어서는 집권당인 국가통일전선(United National Front)을 이끄는 위크레메싱헤 총리와 야당인 인민동맹(People’s Alliance)의 쿠마라통가(Kumaratunga) 대통령과의 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조속한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1년 초, 제1야당인 국가통일전선(UNF)을 이끌던 위크레메싱헤가 쿠마라통가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여 의회의 불신임투표를 결의하자,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이에 맞서 2001년 10월 10일 의회를 해산하고 同년 12월 5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여 재집권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국가통일전선(UNF)이 집권당인 인민동맹(PA)을 누

르고 의회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7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되었음. 이후 국가통일전선(UNF)의 위크레메싱헤가 신임 총리로 임명된후, 대통령은 내각이 제안하는 정부 시책들을 지연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과 내각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원만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타밀 반군측이 협상 불참에 대해서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전의 선제공격을 통한 일방적인 협상결렬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도 지속됨

- 4월 협상 결렬이후에도 IMF가 5억 6,700만 달러를, World Bank가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지난 6월 9일~10일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부흥 개발회의」에서 향후 4년 간 45억 달러(당초예상은 30억 달러)를 북·동부 지역의 인프라 복구 및 난민 정착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평화협상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